

# 직구 150km 찍었다... 그 이름 '이·승·재'

KIA 핫 플레이어

캠프, 마운드 옥석 가리기...라이브 피칭서 강속구 어필 '불펜 예약' 세밀함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속제... '타자와 승부 기대... 1군 가졌다'

KIA 타이거즈의 '루키' 이승재(21)가 강속구로 불펜 한 자리를 노린다.

KIA는 지난 26일 라이브 피칭에 돌입해 본격적인 '마운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선발 후보로 좌완 이의리와 장민기가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루키' 이승재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이승재는 2년제인 강릉 영동대를 졸업하고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신인이다. 나이로는 김현수와 동갑이다. 친구 김현수가 선발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승재는 불펜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직구다. 대학시절 150km를 웃도는 직구를 뿌리며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승재는 이번 캠프 불펜 피칭에서도 150km를 찍었다.

KIA에 150km 넘는 강속구를 구사하는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승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소화한 첫

이브 피칭 때도 이승재는 강속구로 어필했다. 묵직하고 빠른 직구로 타자-전력분석팀의 호평을 받았다.

이승재도 "첫 라이브여서 긴장도 했고, 100%를 못 해서 아쉽지만 직구는 잘 들어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직구 어필은 확실해 했지만 '슬라이더'는 속제다.

이승재는 프로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슬라이더를 갈고 닦고 있다. 아직은 위력적인 직구에 비해 슬라이더 제구가 떨어지면서 이승재에게 속제가 남았다.

이승재는 "아마 때 던지던 슬라이더가 있는데 프로에서 안 통할 것 같아서 교정하고 있다. 첫 라이브 피칭 때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게 잘 안됐다"고 이야기했다.

마음처럼 슬라이더가 착각 손에 감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승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이승재는 "곽정철 코치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다. 코치님이 윤석민 선배님하고 친해서 알아봐주겠다고 하셨다. 정명원 코치님도 많이 알려주신다"며 "감독님께서도 슬라이더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타자들이 속는다고 말씀해주셨다"고 언급했다.

3일 라이브 피칭이 끝난 뒤 타석에서 이승재의 공을 지켜봤던 '선배' 류지혁은 따로 이승재를 찾아 "투심이나 직구가 좋은데 슬라이더가 아쉽다"며 귀한 조언도 해줬다.

슬라이더의 정밀함이 아쉽지만,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직구가 있다는 점에서 이승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승재도 자신의 장점으로 어필해서 1군 마운드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이승재는 "1군 캠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워낙 형들도 편하게 잘 해주셔서 재미있게 하고 있다"며 "정명원 코치님께서도 불 빠르고 구위 좋으니까 자신 있게 가운데 보고 던지라고 말씀해주신다. 주자 있을 때 올라가도 내공 던질 수 있고, 빠른 직구가 자신 있다. 경쟁한 타자들과의 승부가 재미있을 것 같다. 한 가운데 보고 직구로 잡겠다. 홈런 맞을 각오로 던지겠다. 그렇게 던진다고 해서 다 홈런이 되는 것도 아니다. 1군에 갈 수 있도록 잘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재

## 메이저리거들, KIA 연습경기 '특급 해설'

7일 서재응·14일 김병현

다음달 1일 윤석민

포털·유튜브·TV 중계

KIA 타이거즈 연습경기에 윤석민·김병현·서재응 '특급 해설자'가 뜬다.

KIA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연습경기 5경기를 생중계한다.

KIA는 7일 자체 흥행전을 비롯해 13·14일 한화전 그리고 16일과 4월 1일 흥행전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른다.

카메라 5대가 투입되는 이번 중계에는 '특급 해설자'들이 참여한다.

해설위원으로도 좋은 활약을 했던 서재응 투수 코치가 7일 흥행전에서 해설을 맡고, 14일에는 김병현이 해설자로 나선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윤석민이 해설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생생하게 경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타이거즈 열혈팬'인 개그맨 김태원(16일)도 해설을 맡는다. 캐스터는 광주지역 케이블TV(CMB)에서 KIA 경기 중계를 담당하는 흥성희 아나운서가 담당한다.



서재응



김병현



윤석민

자체 연습경기과 팀 간 연습경기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4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는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도 만날 수 있다. 13일 한화전은 MBC SPORTS+에서 방송된다.

KIA는 "긴 겨울 동안 KIA 타이거즈 경기를 보고 싶어 한 팬을 위해 연습경기 중계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청을 바라며, 우리 선수들이 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평균연봉 9030만원 ... 10개 구단 중 9위

KBO 평균 1억2273만원 전년비 15% ↓ ... 1위 SK 1억7421만원

연봉킹, 추신수 27억원...KIA, 최형우·김선빈 등 역대 연봉 10명

KBO의 평균 연봉이 2년 연속 감소했다.

KBO가 4월 2021 선수단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신인·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10개 구단 소속 선수 532명의 평균 연봉은 1억227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억4448만원 보다 15.1%나 감소한 수치다.

전체 연봉 총액 규모도 65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739억7400만원에서 86억원8000만원 감소했다.

팀 평균 연봉 1위는 SK로 1억7421만원을 기록했다. 또 1억4486만원에서 20.3%가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인상률도 기록했다.

SK에 이어 '디펜딩 챔피언' NC가 1억4898만원으로 평균연봉 2위를 기록했다. KIA의 평균 연봉은 9030만원으로 지난해 최하위 한화(7994만원)에 이어 가장 낮았다.

올 시즌 연봉킹은 KBO리그에 입성한 SK 추신수가 차지했다.

추신수는 27억원에 연봉 계약을 하면서 이대호가 가지고 있던 최고 연봉 25억원을 경신했다. 추

신수에 이어 NC 양의지와 키움 박병호가 각각 15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

앞서 23억원으로 역대 투수 최고 연봉을 받았던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을 위해 떠나면서 투수 부문 1위에도 변화가 있다. 삼성 오승환이 11억원을 받으면서 투수 최고 연봉자가 됐다.

키움의 이정후는 5년 차인 올 시즌 5억 50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면서 3년 연속 해당 연차 최고 연봉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정후의 5억 5000만원은 김하성이 기록한 종전 최고액인 2018년 3억2000만원을 뛰어 넘은 금액이다.

'신인왕'에 빛나는 KT 소형준은 418.5%로 올 시즌 최고 인상률을 장식했다.

지난해 최저연봉 2700만원을 받았던 소형준은 1억 4000만원에 재계약하면서 무려 418.5%가 상승했다. 이는 2020년 SK 하재훈의 455.6%에 이은 역대 2번째 최고 인상률이다.

소형준은 두 번째 시즌 바로 역대 연봉에 진입하면서 팀 선배 KT 강백호가 2019년 기록한 2년 차 최고 연봉 1억2000만원도 넘어섰다.

올해 KBO리그에서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연봉 선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164명이고, 2017년 163명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161명을 기록했다.

KIA에서는 10명이 역대 연봉이며, FA 재계약에 성공한 최형우가 9억원으로 최고 연봉자이다. 김선빈(4억5000만원), 나지완(4억), 박준표(1억6000만원), 전상현(1억4000만원)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올 시즌 KBO리그의 평균 연봉도 감소했다

각 구단의 육성 기초 속에 평균 연령은 27.1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27.3세보다 0.2세 낮아졌다. 평균 연차도 8.4년에서 8.1년으로 줄어들었다.

올 시즌 최고령은 롯데 송승준으로 등록 당시 시점 기준으로만 40세 7개월 3일로 집계됐다. 최연소 선수는 한화의 신인 정민규로 만 18세 22일이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2.6cm, 86.8kg으로 지난해 183cm, 87.5kg에서 소폭 줄었다. 최장신은 한화 신지후(198cm), 최단신은 삼성 김지찬(163cm)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종, 메이저리그 문 앞에 섰다

2~3일 내 시범경기 등판...텍사스, 선발·불펜 시험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도전하는 원수 투수 양현종(33)이 시범경기 출격 준비를 끝냈다.

양현종은 4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스프링캠프 합류 후 처음으로 타자를 세우 놓고 던지는 라이브 투구를 했다.

지난달 24일 텍사스 스프링캠프에 참여해 2월 26일, 3월 1일 두 차례 불펜에서 공을 던진 양현종은 사흘 만에 라이브 투구에 나서 실전에 등판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라이브 투구는 보통 실전 등판 직전에 이뤄진다. 더그 매티스 텍사스 투수코치는 지난해 중순 인터뷰에서 양현종의 빠른 볼 제구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변화구 컨트롤 능력을 높이 샀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양현종이 커브의 구사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보여준 내구성과 꾸준함을 인정받은 양현종은 2~3일 후 시범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점쳐진다.

양현종은 시범경기에서 한국보다 미끄러운 메이저리그 공인구와 한국과 약간 다른 스트라이크 존



에 본격적으로 적응력을 키운다. 텍사스 구단은 양현종을 선발은 물론 불펜 투수로도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